

# 열악한 근무환경 못 버텨...전남 교사들이 떠난다

### 3년간 289명 퇴직, 그중 73명이 임용 1년 내...올들어만 교사 69명 퇴직 보수적인 교직문화 적응 힘들고 소규모 학교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경쟁률 낮은 전남 합격한 뒤 타지역으로 재임용...정착 대책 마련 절실

전남에 임용된 젊은 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정주 인프라도 부족하고 업무량까지 많은 데 인센티브는 인색하기 때문이다. 결국 전남지역 교사들의 타지역 유출이 심해 교육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전남도교육청의 '교원 중도퇴직 현황'(유·초·중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중도 퇴직(의원면직)한 교원은 총 289명에 달한다. 한 해에 100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그만두는 꼴이다.

2021년 66명, 2022년 95명, 2023년 59명의 전남지역 교사가 스스로 교단을 떠났고, 올해 4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지만 69명의 교원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중 25%에 달하는 73명(2021-2024년 4월)이 임용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해에만 13명이 사직했다.

지난해 교육부의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 까지 퇴직한 국·공립 및 사립 교원 330명 중 전남 교원이 97명(29.4%)으로 가장 많았다.

교사들은 전남지역에서 유독 중도퇴직 인원이 많은 이유는 '재임용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합격률이 비교적 높은 전남지역에 우선 자리를 잡은 뒤 다시 임용시험을 치러 원하는 지역으로 떠나는 인원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전남지역 초등학교에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한

교사는 "10년 전 임용된 교사 3분의 1 정도가 타지역 N수생들이었다. 경쟁률이 낮은 전남지역에 합격한 뒤 다시 고향에서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교사들이었다"며 "지금 그 사람들 대부분이 전남에 남아 있지 않다"고 귀띔했다.

현장에서선 임용시험을 전후해 갑작스러운 결원이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자 학교 관리자들이 '타 지역 임용을 보게 되면 미리 알려달라'고 호소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현직 교사들은 전남 지역에 신규 교사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떠나는 이유로 열악한 주거와 생활 인프라를 1순위로 꼽는다.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전반적인 생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여수·순천·광양 등 일부 시를 제외한 도서 지역에는 교원을 위해 지급되는 관사가 열악하다는 것이다.

도서 지역 관사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다는 한 교사는 "관사가 오래돼 곰팡이가 슬거나 벌레가 자주 나오는 건 기본이고, 울타리가 없어 외부인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등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다"면서 "관사에서 살면서 돈을 모을 생각이었지만, 결국 못버티고 동료 교사 몇 명이 돈을 모아 따로 집을 구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남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하고 싶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산어촌에서 토대를 만날 기회 자체가 적다"며 "주말

마다 광주 등 근처 도시로 가야하는 상황에 지쳐 타 지역 진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또 전남엔 소규모 학교가 많은 만큼 적은 수의 교사들이 많은 업무를 맡아야 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413개교로 전체 학교 수의 47.7%에 달한다.

학생수가 적더라도 행정업무는 똑같다는 점에서 오히려 도서지역 신규 교사는 담임부터 행사 진행, 교무, 연구까지 과도한 업무를 담당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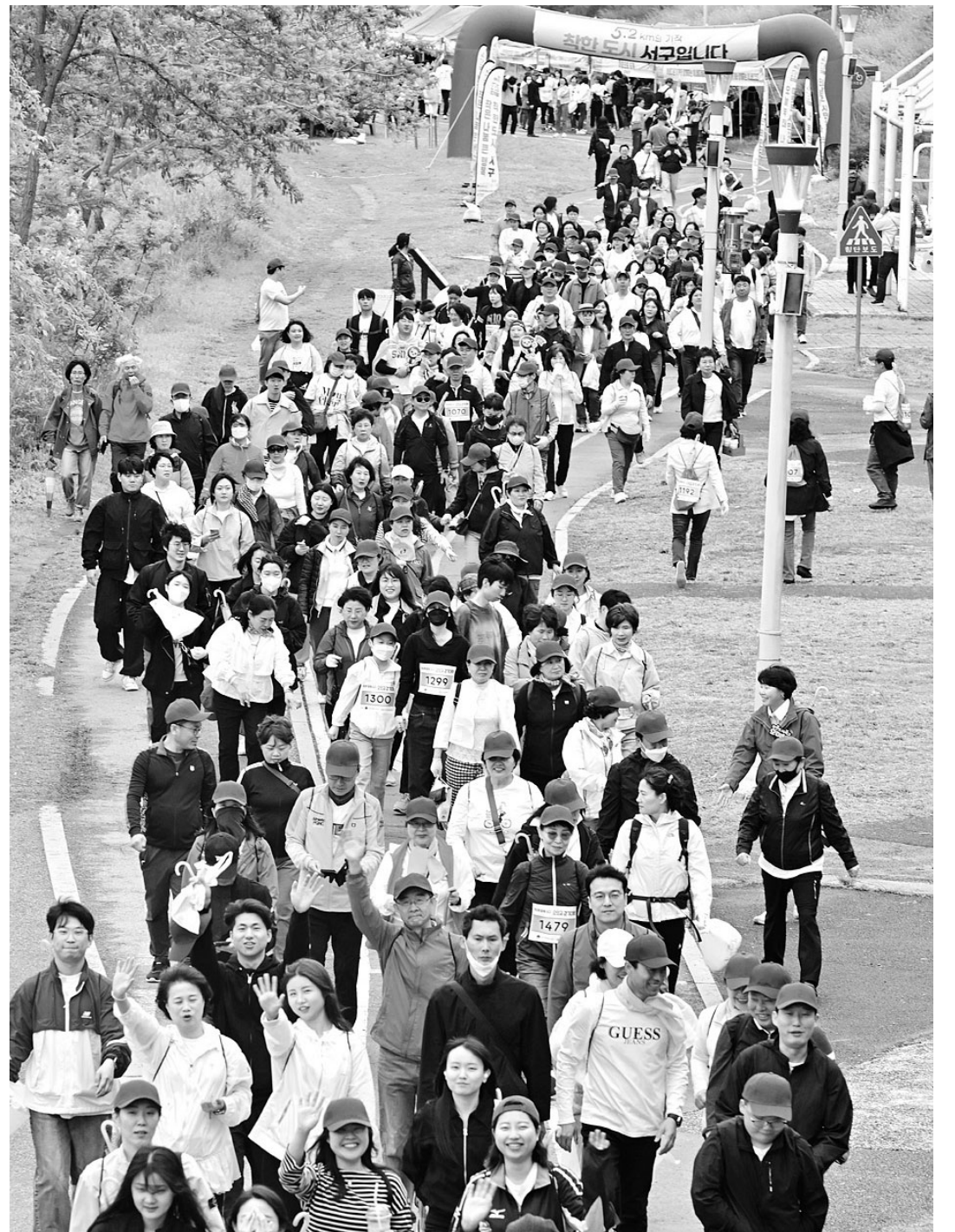
교직 문화가 보수적이라 신규 교사가 적응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현직 교사는 "구두 보고를 하지 않으면 업무 결재를 하지않고, 전체 회의 시간에 교장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교사가 있으면 1년 내내 해당 교사를 괴롭히는 일은 드물지 않다"며 "회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밤 늦은 시간에 연락하는 등 다른 지역에선 문제가 됐을 일이 아무렇지 않게 발생해 타지역에서 온 신규들은 물론 고향인 교사들조차 못 버티고 떠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교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도서벽지수당을 제공하고 있지만, 월 3만~6만원에 불과해 교사들을 붙잡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교사들은 지적한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는 "젊은 교사들이 조기에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면, 지역에 경험과 전문성 있는 교사들이 부족하게 돼 결국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면서 "단기적인 인센티브 외에도 교사들이 떠나는 이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연구와 현실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이웃사랑 '오잇길 걷기대회' 5.2km를 걸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제2회 함께서구, 오잇길 걷기대회'가 20일 오후 광주천 일원에서 열렸다. 광주시 서구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시민 1592명이 참가했으며 참가비 전액은 가족돌봄청소년 후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사건 인사이트

### 어느 애견인의 안타까운 죽음

#### 무안 60대, 반려견들 구하려고 불길 속 뛰어들어 숨져

무안군의 한 화재 현장에서 60대가 반려견을 구하겠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숨졌다.

21일 무안소방과 무안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께 무안군 삼향읍의 한 농장 인근 공터의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불이 났다.

불은 컨테이너 2개 동을 모두 태우고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만에 꺼졌으나, A(65)씨가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컨테이너에서는 소형견 10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A씨는 무안군과 별다른 연고도 없는데 컨테이너도 외진 곳에 설치돼 있어 이웃 주민과 자주 교류하지는 않았지만, 이웃들 사이에서는 '개 사랑꾼'으로 유명했다.

경찰과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A씨는 수년 전부터 무안군의 야산에 컨테이너를 놓고 반려견을 키웠는데, 하나 둘 키우는 개를 늘리다 보니 어느새 반려견이 20여마리에 달했다고 한다.

특히 유기견을 여러 마리 입양해 컨테이너로 데려와 자식처럼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키우던 개가 목줄이 풀려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웃과 마찰을 빚는 등 해프닝도 종종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목포에서 홀로 거주하면서 반찬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으며, 주기적으로 무안에 들러 반려견을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에도 A씨는 목포에서 일을 하던 중 이웃 주민으로부터 화재 발생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을 찾았다.

A씨는 "개들을 구해야 한다"며 만류하는 이웃 주민들을 제치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 내·외부에 사람이 없었다는 점에서 방화 등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인과 A씨의 사인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대낮 차량 카페 돌진

#### 광주에서 8명 부상

#### 6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광주에서 대낮에 카페로 차량이 돌진해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21일 광주동부경찰과 동부소방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1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상가 카페 건물에 A(65)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상가 내에 있는 시민 등 5명이 차량에 깔리는 등 중상을 입었으며 2명과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운전자 A씨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으며,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상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한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차량의 이상 여부와 급발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노부부 무차별 폭행...1명 숨지게 한 40대 구속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노부부를 무차별 폭행해 한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북부경찰은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한 A(45)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새벽 6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집으로 귀가중이던 이웃 B(여·71)씨와 C(72)씨 노부부를 때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노부부를 폭행하기 전 뒷층에서 살고 있는 60대 여성 D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5시 30분께 나체 상태로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폭대기 층부터 내려가던 A씨는 14층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D씨를 붙잡고 주먹으로 때려 크게 다치게 했다. D씨는 이틀만에 겨우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3층으로 향한 A씨는 복도에서 새벽기도 후 귀가하던 B씨 부부와 마주치자 이들이 쫓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폭행했다. B씨는 이웃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출혈로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소음 등으로 다툼이 있어 B씨를 기다려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A씨 유족은 "묻지마 폭행"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